

## 적극행정

과 제 명	안될거라고? 시도는 해봤나! 고질적 민원해소, 대화와 양보,타협으로 지역상생 구현
제출부서	낙동강유역본부 청송권지사
팀 원	(리 더) 조영주 부장 (팀 원) 강형순 차장, 황광훈 대리, 신혜원 대리

추진 배경	<p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길안천(취)은 경산 영천시에 40,300m<sup>3</sup>/일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임          - 건설 당시부터 극렬하게 반대한 주민들의 분쟁으로 시설준공('18년 11월) 이후 1년이 경과된 19년 가동합의를 하였으나 <b>하천여건 변화로 취수 장애 발생</b> 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취수여건 확보를 위한 구조물 설치를 위해서는 <b>주민의 동의가 최우선</b> </p> <p> <input type="checkbox"/> 길안천(취)은 성덕담 하류 약 30km 지점에서 취수, 영천담도수로를 통하여 경산 영천시에 40,300m<sup>3</sup>/일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<b>붙임1</b>  <input type="checkbox"/> '19. 10월 가동 결정하였으나 <b>하천여건 변화로 취수장애 발생</b> <b>붙임2</b>          - 취수여건이 악화되어 임시 가물막이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취수장 건설 당시부터 하천 건전화등으로 극렬하게 반대하였던 주민들의 민원으로 철거          * 현재 시설용량 대비 약 40% 수준인 15천m<sup>3</sup>/일 취수 중으로 부족물량은 보현산에서 대체 공급 중       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<b>가물막이 설치</b></p> 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<b>가물막이 철거</b></p>  </div> </div> <p> <input type="checkbox"/> 당초 계획한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하상복원 등 취수여건 확보가 필요하나 K-water에 대한 <b>피해의식이 팽배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동의 필요</b>          * '15년 건설 당시부터 지역주민의 반대가 극심하였으며 시설 준공('18년 11월) 이후 1년이 소 요된 시점에서 주민 요구사항(마을발전기금 지급)을 <b>수용한 2천만원 지급 후 가동합의</b> <b>붙임3</b> </p> <p>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수장이 위치한 지역은 <b>영천담도수로 건설에 따른 지하수 고갈로 피해의식이 팽배하며, 상수도 미 공급에 따라 가뭄 등 물 재해에 고통받고 있음</b>  <input type="checkbox"/> 99가구 161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<b>계곡수를 식용수로 이용중이며 길안천에서 취수, 농업 및 기타용수로 이용 중으로 가뭄 등 물 재해에 취약한 실정임</b>          * 식용수 부족으로 K-water 병물 지원 중으로 <b>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복지 제고 필요</b> </p>
----------	---

추진  
내용

- ✓ 피해의식과 불신이 누적된 **지역주민과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 도출**
  - 취수장 위치지역을 댐건설법시행령에 따른 지원사업구역으로 신규 지정 추진
- ✓ 신규 지정시 **기존 지자체의 지원금액이 감액**되는 여건으로 동의를 어려울거라는 우려를 적극적인 이해 설득으로 극복 **신규지정 의결**

① 진솔한 대화로 신뢰 회복의 초석을 마련

- 하상복원 등 길안천 취수장 정상화를 위하여 안동시 부시장 등\_6회, 주민대표\_20회 등 총 26회 소통 및 협의 추진
  - (지 자 체) 정상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최우선 되어야 함
  - (주민대표) 지역발전기금 정례지급 등 K-water의 신뢰회복 필요

↳ **취수시설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임**

- 취수장 건설에 따른 피해의식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적, 실무적 방안 강구
  - (방안도출) 취수장이 위치한 지역을 **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구역으로 신규 지정 시 정례적 지원 가능**(근거 : 댐건설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)
    - \* 법적 대상인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와 별개로 댐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신규 지정 가능
  - (추진노력) 신규 편입방안은 **기존 지자체의 지원금액이 감액되는 상황으로 동의를 어려울거라는 우려**가 많았었지만 **적극적으로 이해, 설득을 추진** **붙임4**
    - (설득논리) ①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상, 하류 지자체 **지역 균형발전 가능**, ② 하류 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**상류 지역 희생**, ③ 기존 지원사업비가 일부 감액되나 정상화 시 **감액금액보다 더 증가되어 기존 지자체가 혜택이 큼**

② 양보와 타협으로 지역 상생 구현 및 국민 물복지 제고

- 기존 지자체에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가 예상되는 항목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안 제시로 신규 지자체 지정에 대한 수용도 제고 노력
  - 신규 지자체 **지원조건 및 금액 한도(10백만원) 설정**, 향후 정상화에 따른 지원금액 증가금액은 **금회에 양보한 기존 지자체에 우선 배분** **붙임5**

↳ **댐지원사업구역으로 신규 지정 의결(5.18, 전체 15인 중 12인 찬성)**

주요  
성과  
(기대성과)

- ✓ K-water 최초로 지원사업협의회를 통한 지역상생, 현안해결 **善例모델** 구축
  - 고질적 잠재적 **민원발생요인 차단** 및 **양보와 타협을 통한 지역상생 모델 구현**
- ✓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보강형식의 구조물 설치로 『**국민 물 안전 확보 및 지역민의 현안해소**』 라는 모범적 Win-Win 사례 실현

- K-water 최초로 지원사업협의회를 통한 지역상생, 현안해결 **善例모델** 구축
  - 고질적 잠재적 **민원발생요인 차단** 및 **양보와 타협을 통한 지역상생 모델 구현**
- 취수시설 정상화로 하류지역 안정적 물 공급 및 **가뭄 등 국민 물안전 확보**
-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보강형식의 구조물 설치 추진으로 『**지역민의 현안해소 및 취수시설 정상화**』 라는 상호 Win-Win 사례
- 용수판매 확대(487백만원) 및 **지원사업비 증가(84백만원)**로 지역 소득창출 기여

구 분	As-Is	To-Be	차이
용수판매	15,000 * 52.7원 * 365 = 288백만원	40,300 * 52.7원 * 365 = 775백만원	<b>487백만원</b>
지원사업	583백만원	667백만원	<b>84백만원</b>

실무상  
어려움

- ✓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주민대표가 지원사업 **협의회 의결 내용 불 수용**, 취수장 정상화 관련 **향후 절차 협조 불가 통보**
- ✓ 정상화를 위한 신규 구조물 설치 관련 **인허가권자의 허가 어려움**
  - **취수장 건설 당시부터 극렬하게 반대하였던 지역정서 고려**

- 지원사업협의회 의결 내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대표가 **지원금액과 조건 설정에 대한 불만족으로 수용 불가 입장**
  - 피해의식과 공공사업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지역으로 의결과정 및 내용에 대해 불신하며 무조건적인 2천만원 지급 수용 요구
    - \* 주민대표가 면담을 거절하여 **주거지를 찾아가서 설명하는 등 설득과정의 어려움**
- 취수시설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가 필수적이나 **하천점용 허가권자인 안동시의 허가 어려움**
  - 보 설치하는 지역 내 반대가 극심했던 사안으로 **허가권자의 불허가 예상됨**

해결  
노력

- ✓ 법적 기준 및 기존 지자체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금액 산정, 지원 사업협의회 신규 의결을 위한 지원조건 부과의 불가피성 설득
  - ✓ 신규 구조물 설치를 가뭄 등 물 안전에 취약한 지역현안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로 주민대표의 동의 및 향후절차 협조 도출
- 
- 협의회 의결(5.18) 이후 약 1개월간 주민대표 설명, 설득
    - 지원금액은 법적 기준 및 기존 지자체 형평성을 고려한 최대임
      - 법적 지원대상 지자체중 가장 최소인 의성군의 지원금액은 1.2천만원임
      - 정상화 담보조건이 없는 지원의결은 기존 지자체 동의 불가
  -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 현안과 연계,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로 Win-Win 사례 구현
    - 하상 세굴등으로 유실 위험에 처한 마을상수도 급수배관 보호공을 보강, 지역민의 안정적 용수 사용과 취수시설 정상화를 위한 적정 수위 확보 도모
      - 지역주민 58가구의 마을상수도 보강요청 건의서 접수 완료 **붙임6**
      - 안동시의 점용허가를 위한 자료 제출요청 공문 접수 및 설계용역 진행중 **붙임7**